요식업 준비한다면 '대구 서문야시장'으로

2015년 중기부 글로벌명품시장으로 선정돼
청년상인들의 '실전 창업인큐베이터' 역할 수행
방문객 3080만명, 지역경제 파급효과 2800억


서문시장 야시장이 글로벌명품시장으로 고객들이 붐비고 있다. 사진=대구시

서문시장 야시장, 이제 '관광의 별'을 넘어 청년 상인들이 꿈을 이루는 '창업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

한강이남 최대 전통시장이자 대구 대표 시장인 서문시장은 2015년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명품시장으로 선정돼, 2016년 6월 '대한민국의 중심, 대구에서 야(夜)하게 놀자!' 라는 주제로 전국 최대 규모인 80개 매대의 야시장이 조성됐다.

서문시장 야시장은 개장 이후 3천 8백만 명 이상이 방문했고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2,8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며,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됐다.

또한 '에스비에스(SBS) 런닝맨'(2016), '티브이엔(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2018. 6.), 중국 철강성 '항저우티브이(TV)' 다큐(2016) 등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야시장을 무대로 촬영하는 등 촬영지로 인기를 끌고 있고, 프로그램이 방송되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케이비에스(KBS) 다큐멘터리 3일'에 방영된 이후,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 1위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서문시장은 야시장 개장 이후 평일에는 평균 2만여 명 주말에는 평균 5만여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서문시장역은 대구 도시철도 3호선 30개 역사 중 승객이 가장 많다.

이와 같은 서문시장 야시장의 성공 요인은 시민 및 외국인 50여 명이 판정단으로 참여하는 품평회를 통해 고객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먹거리와 제품을 선정하는 야시장 매대 셀러 모집 방식에 있고, 도시 철도를 연상하게 하는 매대 디자인의 참신성도 한몫을 하고 있다.

또 상설문화공연, 서문가요제, 청년버스킹, 스트릿 댄스배틀, 해외뮤지션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즐길 거리와 미디어 파사드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매력적인 요소이다.

특히, '17년 11월 개장한 한옥게스트하우스는 특색 있는 야관 경관과 한복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개장이후 만여 명의 관광객이 투숙하는 등 인기를 끌어 도심 체류형 관광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문시장 야시장은 청년 상인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인들 간 네트워크를 통해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장이 되고 있다.

이밖에 고객 집객 효과가 높은 환경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청년 상인들의 창업 역량을 키우는 소상공인 창업의 허브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야시장 개장 때부터 올해 2월까지 매대를 운영한 김태균씨는 현재 서부시장 오미가미 거리에 '불닭발' 외식 사업장을 열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발휘하고 있다.

서문야시장 1대 상인 회장이며 야시장에 스테이크 붐을 일으킨 매출 1등 매대 운영자였던 권문식 씨는 삼겹구이, 김치찌개 등을 도시락으로 만들어 배달하는 한식 도시락 외식 사업을 열어 경산지역 맛집 랭킹에 오르는 등 활발히 영업 중이다.

홍석준 대구시 경제국장은 "글로벌명품시장 사업으로 육성된 서문시장 야시장이 더욱 발전하고 그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 대표 관광지인 서문시장 야시장이 창업을 희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을 구상하는 분들에게 소중한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는 창업의 디딤돌 역할의 장으로도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daily12220@meconomynews.com

"경북 귀농·귀촌 정책 재검토해야"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5차 '농촌살리기 정책포럼'

경상북도는 24일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귀농·귀촌에서 농촌살리기의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제5차 '농촌살리기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제5차 농촌살리기 정책포럼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시대적 추세,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을 살리는 불씨가 될 수 있는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관련 전문가, 공무원, 주민이 함께 그 실태와 문제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포럼 공동위원장인 이동필 경상북도 농촌살리기 정책자문관은 "농촌살리기를 위해 귀농·귀촌 정책의 목적과 대상, 수단이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지,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재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승탁 기자 stking12@meconomynews.com

28억 계약 체결… 대구 안경산업, 베트남서 돌파구 찾다

대구시·(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베트남 안경 브랜드 상담회 참가


베트남 해외 안경 브랜드 상담회 장면. 사진=대구시

이제 안경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대구시, 안경업계,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 힘을 합쳐 직접 발로 뛴다.

대구시와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국내 안경 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과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베트남 해외 안경 브랜드 상담회에 참가했다. 상담회는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간 베트남 안경시장의 중심지 호치민과 수도 하노이에서 개최됐고, 지역 안경기업을 포함한 총 12개 사가 함께 했다. 이번 행사에서 베트남 옵티컬(Vietnam Optical), 맷 비에트(Matviet), 비에틴 옵티컬(Viettin Optical) 등 72개사 바이어들과 총 528만 달러 상당의 상담 실적을 거둬, 이중 240만 달러의 계약을 추진 중이다.

또, 기업 간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해 국내 안경업계가 베트남 시장에 더 깊숙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한 참가기업 대표는 "최근 안경 산업이 대내외 환경 변화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이번 상담회를 통해 지역 안경기업들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베트남 시장에 우리 제품과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러한 마케팅 지원 사업이 지속돼 기업들에게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를 만나고 수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산 안경테의 베트남 수출액은 '18년 기준 16년 대비 169%가 증가 했고, 선글라스는 1,033%로 급속히 증가했다. 이는 베트남의 한류 열풍이 국내 안경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시와 산업통상자원부,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은 안경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한국 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2019년 해외 브랜드 상담회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다가오는 11월에는 홍콩국제전시회, 내년에는 독일 뮌헨광학전(Opti2020) 참가 등 글로벌 안경 브랜드 육성을 위한 해외 시장개척사업을 추진한다.

앞으로도 대구시와 진흥원은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경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과 수출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홍석준 대구시 경제국장은 "지역 특화산업인 안경산업 육성을 위한 시의 지원 사업들이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베트남 안경시장을 필두로 글로벌 시장 트랜드 선도 및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안경업계와 더불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daily1220@meconomynews.com

동해안 10년 먹거리·일자리 찾는다

대구경북연구원, 6대 추진전략 제시

경상북도는 24일 동부청사 회의실에서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 5개 시군, 대구경북원구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동해 블루파워 신성장 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용역 수행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은 '환동해 새지평, 해양경북'을 비전으로 ▲해양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국가 청정에너지 산업화 거점 조성 ▲수산업·어촌 신활력 창출 ▲환한 동해 해양문화 관광지대 조성 등 6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해양신산업 성장 기반 구축'은 첨단해양장비 기술 상용화 확대를 위한 해양신기술 육성 기반 조성, 해수자원 및 해양바이오 신소재를 통한 해양자원 산업화 방안 마련 등이 주요사업으로 조성에 적극 나선다.

또 '국가 청정에너지 산업화 거점 조성'은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경북형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및 방사선 융합기술 기반 에너지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에너지 융복합 산업화 촉진으로 총 29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전강원 경상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환동해 경제권이 확대됨에 따라 동해안이 국가 성장축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첨단 해양신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특성에 기반한 해양신산업 발굴 및 해양문화관광 활성화 등이 이뤄져야한다"며 "동해안 5개 시군과 함께 지역경제를 선도할 해안권 개발사업을 지속 발굴해 국가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성공을 담보하는 국비 확보와 민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강승탁 기자 stking12@meconomynews.com

